

## "시립 골프장 조성"...민주당 충주시장 경선 공약 대결 후끈

등록 2022.04.25 15:07:18



우건도 예비후보의 스포츠 관광사업 구상도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경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충북 충주시장 예비후보들이 공영 골프장 조성 등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우건도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골프장 조성 and 충주관광공사 설립 등 관광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관광산업은 충주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충주관광공사를 설립해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수익모델을 만들어 자체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립 골프장과 함께 실내 워터파크 조성, 목행 파크골프장 조명 시설 설치, 테마형 사격장 조성 등을 공약했다. 특히 우 예비후보는 시민 골프장 조성 위치를 표시한 지도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상고 예비후보도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일반 골프장 이용료의 50% 수준인 시민 복지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면서 "공휴일은 충주시민만 이용하도록 외지인 예약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충주는 골프 8학군으로 불리지만 시민과 학생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골프장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골프 특기생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우건도-경상고 예비후보와 공천장을 다투고 있는 한창희 예비후보는 같은 날 "충주시를 '중앙시'로 확대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중앙시 추진을 '통 큰 공약'이라고 자평한 그는 "인근 시군과 행정구역을 통합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만들면 맞춤형 도시 개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충북도청 제2 청사와 상급 종합병원 유치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충주시장 민주당 경선 주자는 우건도-경상고-한창희 예비후보와 함께 맹정섭 예비후보 등 4명이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일정은

26일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